국토교통부, “고령자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차질 없이 추진”

- 24일 고령자복지주택 찾아 고령자 주거안정 위한 적극 지원 약속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2월 24일(화) 오후 서울시 소재 고령자복지주택을 찾아 주민복지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했다.
-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주공 3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맞춤형 특화 시설로 치매안심센터, 경로식당 등 건강지원시설과 교양강좌실 등 여가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. 이곳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체조, 노래교실, 원예정서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거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.
-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“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, 주거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고령자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올해는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하여 작년보다 3배 확대된 3천호 공급을 계획했고,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 - * 건설임대 : 상반기 공모 750호 선정, 하반기 공모 310호 공모 신청(선정중) / 매입임대 : 상시매입 250호(예상), 1차 공모 490호 선정, 2차 공모 204호 선정 / 리모델링 : 1,000호
 - 또한, 복지시설 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주거와 보전이 결합된 서비스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, 앞으로는 공공에서 주로 제공되는 고령자 맞춤 주거서비스가 실버스테이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.
- 마지막으로, 박 장관은 “어르신들이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, 아울러 고령자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4. 12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